

# 이거월호

## Contents

자립생활기술훈련 연극관람 ‘옥탑방 고양이’ 를 관람하며 ..... 2

강북자립생활학교 7강, 8강에 대한 스케치 ..... 4

상반기 센터돌보기 (외부사업평가) ..... 8

하반기 집단동로상담을 진행하며 ..... 10

단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 12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토론회 참여 ..... 14

장애인의 여름나기 ..... 16

장애인에티켓 . 정신지체장애란 ..... 18

이달의 시 ..... 20

이달의 정보 ..... 22

CMS 회비 납부 명단 ..... 23

광고 ..... 24



# 자립생활기술훈련 연극관람 ‘옥탑방 고양이’ 를 관람하며.....

문지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립생활기술훈련 연극 ‘옥탑방 고양이’ 를 관람하는 날이 다가왔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 는 6월 24일(토) 13:00 ~ 16:00, 대학로 토티홀에서 관람하게 되었고, 사업담당자인 나와 스템으로 참여하신 효숙 선생님은 대학로 토티홀에 30분 일찍 도착하여 참여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합 시간이 다가오자 참여자분들은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도착하셨고, 나는 참여자 명단 보며 참여자분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였다. 극장으로 들어가기 전 참여자분들께 주의사항 등 공지를 안내하였고 단체 사진을 먼저 찍으며, 연극관람을 할 준비를 하였다.

이번에 관람하는 연극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참여자분들은 잔뜩 기대감을 품으며 연극 시작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틴틴홀 배우의 연극이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참여자분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극장으로 들어가셨다. 틴틴홀 극장 안의 좌석은 총 228석으로 '옥탑방 고양이'를 관람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가득찬 모습이었다.

'옥탑방 고양이'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하자면, 옥탑방이 이중계약 됨에 따라 벌어지는 아리따운 동거스토리이다. 작가를 꿈꾸는 여자 주인공 정은(배우: 양은진)과 건축도인 남자주인공 경민(배우: 심진혁)이 동시에 옥탑방으로 이사 오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하룻밤과 로맨스, 말다툼, 이별과 재회 등의 연인들의 러브스토리다. 연극이 끝난 후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아르코 미술관 2층 '아르코 아카이브' 도서관 및 쉼터로 이동하였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오늘 본 연극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며 만족도조사지를 작성해 주셨다. 오랜만에 영화가 아닌 연극을 보신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연극관람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나 또한 참여자들의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 뿌듯했다.



#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 7강, 8강에 대한 스케치

허효숙



5월부터 시작한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7강, 8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강북센터 스텝들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진행을 위해 숨을 할떡거리게 만드는 무더위를 뚫고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하였다. 2시쯤 도착한 우리는 시끄럽기도 하고 흥겹기도 한 노래교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며 강의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세팅을 하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2017년 7월 7일 강의는 7강 ‘자립생활과 장애인활동보조’를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다. 7월 14일 강의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현행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님께서 열띤 강의를 펼쳐주셨다.



7강, 8강의 강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7강 자립생활과 장애인활동보조

#### 1. 자립생활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

첫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원리와 철학을 장애인 당사자, 부모, 전문가, 행정가, 정책관련 행정공무원,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임(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둘째,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장애인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자립생활의 대표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소규모 조직의 조직화 확대(조직화)

셋째,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IL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임, 특히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관연계 및 자원연계, 운동연계, 고용연계 등이 필수적임(네트워크 구축)

넷째, 기초생계급여가 보장되듯 기초연금제도가 장애인 수당제도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탈시설화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과제임(지역사회 IL인프라 구축)

다섯째, 제도적 환경의 구축과 권리보장 구축(PAS, CIL, 장애차별금지 등)

## 2.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

- 자립생활기술훈련(ILST)
- 활동보조인파견
- 동료상담
- 주택지원서비스
- 이동서비스
- 자립생활정보제공 네트워크
- 권익옹호
- 보장구 지원
- 자립생활인식증진사업
- 자립생활활동가 연수사업



## 3. 장애등급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장애등급과 서비스의 상관성

둘째, 서비스 제한은 결국 자립생활을 인권측면에서 접근할 때 인권제한을 초래

셋째,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수록 중증인데 중증은 그 비용의 본인부담문제 때문에 자립을 포기하여야 함.

넷째, 자립생활에서 장애등급은 지원의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나 현행 장애등급은 획일적 의료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실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

#### 4. 활동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 고용형태를 현행 시급제에서 월급제도로 바꾸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로 운영하려면 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을 등록하고 등록 계약된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활동보조인의 고용과 계약해지를 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게 됨으로 일정 부분 공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면이 있음.

### 8강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현행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 자립생활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 권

우선 자립생활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립생활은 비장애인 중심의 소극적 자립과 장애인의 중심의 적극적 자립으로 구분된다. 비장애인 중심의 소극적 자립을 살펴

보면, 서구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립적인 것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을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람인 경우에 의존적(dependent)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서구문화에 의하면, 자립적이지 못함은 종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의존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오혜경,1998). 이는 자립이란 다분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자립의 개념을 장애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한 매우 협소한 차원에서 정의내린 것으로, 자립을 아무런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반면, 장애인 중심의 적극적 자립을 살펴보면, Brisenden(1986)은 자립생활모델에서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것이나 지능적인 능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이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의 정의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자립이란 장애인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 및 환경의 지원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자립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자립이란, 지역사회 지원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채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삶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장애인 자신의 주인 된 삶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이해할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상반기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

주영경

2017년 7월 19일(수) 09:00~12:00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 상반기  
센터돌보기(외부사업평가)가  
진행되는 날이다.

센터돌보기란 자문위원을 섭외하여  
센터 내 진행된 전반적인 사업을 점  
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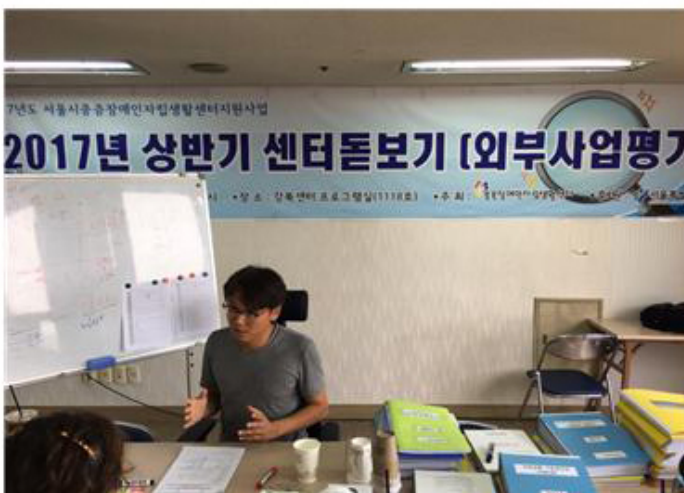
이번 상반기 센터돌보기는 2017년  
1월~7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점검하는 것으로, 자문위원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  
동기 교수님이 진행하시게 되었다.



진행 당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하신 교수님께서서는 사무실 라운딩을 하신  
뒤, 국장님과 티타임을 가지며 9시를 기다리셨다.

9시 정각이 되자

“올라가봅시다~”



김동기교수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 실무자 5명은  
1707호로 향하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강북장애  
인자립생활학교 강의진행 후 또 만나  
니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라는 교수  
님의 인사말과 자문은 시작되었다.

2시간가량 센터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하여 열심히 알려주시고, 남은 1시간은 진행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점검이 시작되었다.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모든 서류를 점검하기에 빠듯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장애복지 관련 전문가이신 김동기 교수님께서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의 핵심포인트만 정확히 콕콕 짚어주셨다.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 구성원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 분야를 처음 접하고 있어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도 했지만, 전문 강사의 자문으로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 센터돋보기(외부사업평가)는 강북센터 직원들이 함께 똘똘뭉쳐 열심히 쳐내온 지난 상반기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외부자문을 위해 먼 길 와주신 김동기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 파이팅^^





#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을 진행하며.....

전난희



폭염주의보가 내린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에서는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내 마음을 들어줘' 가 진행 되었다. 이번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의 진행은 주강사로 송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강우진 교수님과 더불어 보조강사로는 장애인동료상담가이신 박계형 강사님께서 맡아주셨다.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시작시간이 오후 2시였음에도 참여자들은 1시부터 오시기 시작하였다. 35도를 육박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동료상담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정과 관심은 막지 못하였나보다. 담당자인 나와 주영경 주임님은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진행 전날 미리 세팅을 해놓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참여자분들과 함께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로 이동하였다.

집단동료상담의 강의는 먼저 자기소개로 포문을 열었다. 자기소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었고, 두 번째는 '장애를 뺀 나에 대한 소개' 를 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뺀 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을 때 장애를 입게 된 나는 비장애인으로 생활했던 나날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장애는 불편하고 싫지만 처음부터 나에게 붙어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다. 집단동료상담에 참가자들도 조금은 당황하고 어렵다는 생





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 참가자도 장애를 뺀 온전한 나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각자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20분의 꿀맛 같은 휴식시간이 찾아왔다. 빵과 음료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강점 및 약점, 그리고 자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강점으로는 지구력, 망각, 인내심, 아무거나 잘 먹음 등이 나왔고, 약점으로는 푼수, 오래참기, 소심함 등이 나왔으며,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내 생각 밀고 나가기 등의 의견도 나왔다.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원동력이 되는 자원으로는 돈, 자립생활센터, 책, 울 얼마 등이 나왔다. 이렇듯 참가자들은 금전적인 부분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터, 그리고 나를 심리적으로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지원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내가 겪은 억압과 차별. 그에 따른 나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경험한 여러 상황들과 그에 따른 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를 서로 얘기하였고, 그 중 한 참가자는 얼마 전 겪은 차별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말하였다. 동료상담의 제일 원칙이 비밀보장이기에 여기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강사님을 비롯한 참가자 모두는 같이 공감하며 분통을 터뜨리며 얘기를 해준 그 참가자를 마음으로나마 지지해주었다.

주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를 칭찬해 줘 봤냐는 물음에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칭찬에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각자 마음속으로 '참 잘 해왔어, 잘 하고 있어, 잘 해낼 거야' 이렇게 칭찬해주며 강의를 마치겠다고 하셨다.

이번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은 주강사님의 체계적인 컬리큘럼으로 참여자의 집중도와 호응도가 높았으며, 보조강사님의 솔선수범적인 자연스러운 얘기로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참가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 단기체험홍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지수



때는 바야흐로 7월 21일 금요일, 주몽재활원 원생 이신 이선자씨는 2박 3일 동안 자립생활을 경험하려 저희 센터 단기체험홍 프로그램에 입소하였다. 이선자씨는 단기체험홍 입주계약을 작성하였고, 2박 3일 동안 단기체험홍에서 하고 싶은 것들의 계획을 세웠다.

원래 계획은 활동보조 일에 관심이 많은 선자씨를 위해 활동보조를 하는 현장에서 수습을 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다

는 선자씨의 의견에 따라 2박 3일 동안 음식 만들기과 보치아 자조모임에 참여, 그리고 교회 가기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먼저, 단기체험홍 목인트라움에 짐을 풀고 선자씨가 좋아하는 요리~ 파스타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러 단기체험홍 담당자인 나와 선자씨는 수유마트로 향하였다.



선자씨는 수유마트를 가면서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만드는지를 핸드폰으로 검색하였다. 마트에 도착한 선자씨는 스파게티와 같이 먹을 음료와 간식으로 먹고 싶었던 시리얼과 우유도 골랐으며 제일 중요한 파스타 면과 토마토소스를 가격을

비교해 가며 골라 장바구니에 넣었다.

오늘 저녁 요리는 바로~~~~~  
토마토파스타!!!!



선자씨는 핸드폰으로 검색한 조리법을 보며 파스타 면을 삶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스파게티 면은 일반적인 국수 면을 삶는 거와 다르게 삶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자씨는 알맞게 면을 성공



적으로 살아내었다. 성공적으로 살아 낸 면과 토마토 소스를 버무려 그릇에 담은 선자씨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고 스스로도 뿌듯해하였다. 스스로 만든 토마토파스타여서 인지는 몰라도 선자씨는 맛이 일품이라며 토마토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며 자신이 만든 음식에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



단기체험휴에서 이틀날을 맞이한 선자씨는 보치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하였다. 아침 9시 강북



센터 사무실에서 보치아 자조모임 담당자인 주영경 주임님이랑 저와 만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으로 이동하였다.

선자씨는 보치아 심판 자격이 있으며 평소 주몽재활원에서 보치아 프로그램의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인지 보치아 공 던지는 모습이 날달라보였다. 전반전은 선수로 참여하였고, 보치아 심판 자격증이 있는 사람답게 후반전에선 심판으로써의 실력 발휘를 선보였다. 그렇게 보치아 심판으로 참여한 선자씨는 매우 보

람 있어 하며 보치아 자조모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오전 스케줄을 마치고, 오후엔 단기 체험휴에서 세탁기 사용법을 배우며 직접 빨래를 해보았으며 지인들과 만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7월 23일 일요일, 단기체험휴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선자씨는 짐을 챙기고 체험휴를 정리하며 퇴소하였다.

“선자씨~, 단기체험휴에서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자립생활을 경험했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스스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해보고 하다 보니 자립생활에 대해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다음 달 단기체험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토론회 참여

김성윤

제2차 장애인 안전 정책 토론회(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가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국내외빈 인사의 참여와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잇따른 재난사고로 인하여 재난안전성의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장애인의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관리 중에서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권영숙 실장은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설문조사자 103명 중에서 96명이 ‘예’라고 응답해 92.3%라는 높은 찬성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 중에서 토론자들은 ‘재난구조도우미’와 ‘각각의 장애특성에 맞는 방재메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예로 일본은 장애인 각각에 맞는 방재메뉴얼이 있어서 장애인이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난시 안전하게 대처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각각의 장애특성에 맞는 방재메뉴얼이 수립되어져서 장애인의 안전관리의 대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구조도우미’는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난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재난안전시스템의 한 부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구조도우미’ 같은 재난

관리시스템이 수립되어져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한 재난대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약 5000만명으로 장애인 인구는 인구의 5%로 약 250 ~ 270만명 정도가 장애인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구가 250만명인 現(현)시대에서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환경을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이 사회적 모델입니다. 장애인의 재난안전의 종합적인 대책도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보는 관점을 가져서 대책이 수립되어 진다면 각각의 장애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의 대책이 각각의 장애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대책이 수립되어진다면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의 여름나기

문지수



장애인들에게 더욱 장애를 느끼게 하는 두 계절이 있다. 겨울과 여름이다. 요즘같이 봄, 가을이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장애인들로선 일 년 내내 불안을 지니고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절 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뇌병변 장애인이나 발병 환자의 경우, 겨울철에만 혈관수축 등에 의한 재발이나 증세 악화 등을 주의하면 되었으나 최근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의한 고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로 사시사철이 조심해야하는 계절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운동능력, 감각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보조기구 나 장비 등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피부병의 발병이 심각하고 심한 경우 욕창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피부 부위는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당연히 정상인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름철에 흔한 배탈, 식중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가능한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고 식품의 보존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다수의 장애인들이 배탈이 날 경우 항문 괄약근의 조절이 힘듦으로 인해 낭패를 보기 쉽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가 잦은 여름철에 휠체어에 비를 맞히게 되면 휠체어를 미는 부분( '림' 이라고 하는)에 물기가 생겨서 미끄럽고 특히, 경사진 길을 오르 내리거나 할 때 마찰력이 떨어져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하여야 하고 비를 맞은 휠체어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베어링 부분에 녹이 슬지 않도록 정비를 자주 하여야 한다. 따가운 햇볕도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괴롭힌다. 지금과 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화상예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태양열을 쬐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일사병 등 각종 온열질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보호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줘





야 한다.

여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휴가와 축제의 계절이다. 장애인들로서도 가고 싶은 곳, 보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으나 이 계절에 장애인들이 한 번 밖으로 나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여름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피부가 약한 척수장애인은 모기 물린 자국으로도 고생을 한다. 그만큼 피부의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만일을 위해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여분의 속옷과 옷, 물티슈, 패드, 신문지, 일회용 장갑, 지사제 등 후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차량이 있는 경우 준비해서 비치하도록 하면 좋겠다.

실금과 실변으로 인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섬유탈취제를 이용하는 에티켓도 필요하다. 경수장애인들은 몸에서 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한다. 열이 오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여야 한다. 더위를 피하게 위해 에어컨을 너무 많이 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냉방병이 걸리거나 감기가 쉽게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은 충분히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료는 사양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물의 섭취는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며 번비를 예방하기도 한다. 로호방석 등은 직사광선에 오래 방치시키지 않도록 한다. 방석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져서 팽창으로 접촉부분이 약해지기도 한다.

유비무환, 안전제일의 계절이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48716](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4871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0707171010357206#z>

이미지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05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2986803>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장애인에티켓

## .정신지체장애란.

정신지체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장애인과 의견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정신 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의견상의 장애인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화 - ①정신지체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②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③정신지체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

▪대중음식점에서 - 정신지체인이 메뉴를 읽지 못할 때는 메뉴를 읽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글씨로만 되어있는 메뉴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하기 보다는 음식그림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

•돈 계산 - 정신지체인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돈 계산이므로 비장애인이 대신 계산해주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장소에서 만날 때 - 정신지체인은 교통수단 이용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아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고 사전에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확인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기에는 정신박약(精神薄弱, 영어: Mental deficiency, 영어: Mentally deficient 또는 영어: Feeble minded)으로 불리다가 정신지체(精神遲滯, 영어: Mental retardation)로 개명되었으며, 이후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개명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장애인 관련 법규 내용의 명칭 또한 이러한 지적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박약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로 개명되었다.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로 개명되었다.

과거에는 지능에 따라 백치(白癡, 영어: Idiot), 치우(癡愚, 영어: Imbecile), 노둔 또는 우둔(魯鈍, 愚鈍, 영어: Moron)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지적장애는 지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 지적장애 등급

①최중도(最重度) : 지능지수가 19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에는 백치(白癡, Idiot)로 분류되었다. ②중도(重度) : 지능지수가 20 이상 34 이하인 사람으로 최중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백치로 분류되었다. ③중등도(中等度) :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에는 치우(癡愚, Imbecile)로 분류되었다. ④경도(輕度)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에는 노둔 또는 우둔(魯鈍, 愚鈍, Moron)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 등급은 ①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②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③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미국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의 지적 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지적 기능은 학습,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지수가 70~75 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된다. 적응 행동은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그리고 실제적 기술에의 제한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 모두가 필요하다. 지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단순한 '지능'은 그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논란과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 2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하게 낮은 지적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적응행동의 경우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세 가지 차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성을 평가해야 한다. 측정 도구로서 행동검사를 사용한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0%81\\_%EC%9E%A5%EC%95%A0](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0%81_%EC%9E%A5%EC%95%A0)

[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13&dis\\_t=2#tab\\_menu](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13&dis_t=2#tab_menu)  
[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13&dis\\_t=2#tab\\_menu](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13&dis_t=2#tab_menu)

# 이달의 정보

## 서울휴먼라이브러리 「교수님과 나누는 진짜 진로이야기 1」

1.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서울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의 책처럼 독자가 사람을 한 권의 책으로 빌려 주제에 대해 직접 만나
2.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립대 교수님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진로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가. 행사개요

- 1) 행사명 : 17년 교수님과 나누는 진짜 진로 이야기 1
- 2) 운영기간 : 2017.8.7.(월) ~ 8.10.(목) - 매일14시~16시
- 3) 운영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205호
- 4) 신청기간 : 2017. 7.3.(월) ~ 8.9.(수)
- 5) 모집인원 : 회당 선착순 90명
- 6) 모집대상 : 진로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 7)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https://goo.gl/forms/700BR2FQ1kXCLmbU2>)  
또는 <https://goo.gl/forms/0rtwjGF4XQ2TXFN43>
  - ② 서울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람책마당'을 클릭하여 [진짜 진로]라고 표기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람책 마당 바로가기 : [http://seoulhumanlibrary.org/book\\_list.html](http://seoulhumanlibrary.org/book_list.html)
  - ③ 방문 및 전화접수 (02-6490-6242, 6212)

## 2017 서울시 앱 공모전

1.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여 공공 앱을 제작·배포하고 서울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디지털서울을 구현하고자 『2017 서울시 앱 공모전』 (부제:서울시를 이겨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가. 공모명: 2017 서울시 앱 공모전 (부제: 서울시를 이겨라!)

나. 공모대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 다. 공모과제

- 자유 공모: 서울시와 관련된 공익성을 담은 작품
- 지정 공모: '서울시 공공앱 주요기능 API' 활용

라. 참가자격: 지역·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마. 접수기간: 2017. 6. 1. ~ 10. 31. (5개월)

바. 선정 및 시상: 총 27개팀, 총 상금 3,600만원

사. 공모전 상세 안내

## 물 절약,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 ■주방

①설거지할 때 물은 받아서 하기 ②기름 묻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아내기 ③알뜰식단  
차림으로 음식 남기지 않기

### ■세탁

①빨래들은 한 번에 모아서 하기 ②세제는 사용량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기

### ■변기

①변기탱크에는 벽돌을 넣어 사용하기 ②절수기기 사용하기

### ■샤워·양치질

①양치컵 사용하기/샤워시간 줄이기 ②세수할 때 세면대 물 70%만 받아 사용하기

### ■재사용

허드렛물은 모아서 재사용하기(청소·화분물주기)

등등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습관화 하여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지구를 구합시다!

자료출처 - <http://www.gangbuk.go.kr>

나는 생이란 타인의 삶과의

연결고리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고독하지만 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외롭지만 늘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다.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중에서.....





##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너와 나의 징검다리’ 보수교육 실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진행되는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 보수교육’은 동료상담가가 동료상담을 하며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내담자의 억압과 차별, 그리고 감정해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동료상담가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보수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상담가에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 사업개요

사업명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너와 나의 징검다리”
기간	2017년 08월 25일(금) ~ 08월 26일(토) 1박 2일
장소	대방동 여성플라자
참가인원	선착순 10명 - 장애인 5명 수료 (장애인- 5명, 활동보조- 5명)
참가대상	서울 및 강북구 전지역 (기초·심화과정 수료자의 한함)
접수기간	2017년 8월 07일(월) ~ 8월 22일(화) 오후 5시까지
주최·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접수방법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kbcil.co.kr">http://kbcil.co.kr</a>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접수 및 팩스 접수
기타문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화: 02-908-7776, 이메일: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 팩스: 0303)0799 - 1758, HP : 010-3036-0471 (문자로도 문의 받습니다)
센터주소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빌딩 11층 1119호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음.

